濟州島硏究 제10집(1993), pp. 67~97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일상적 형태의 농민 저항 : 제주도의 넉동배기

김 창 민

요 약

이 글은 국가의 농민지배와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구도에서 넉동배기를 분석한 것이다.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는 물적인 지배와 함께 헤게모니적 지배로 구성되어 있다. 농민지배의 한 수단인 환금작물경제는 생산과정과 잉여에서 농민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가는 농업발전이나 농촌개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지배는 농민들에 의해 간파당하고 재해석된다.

넉동배기에는 환금작물경제에서 적실성을 상실한 제반 문화요소들이 동원된다. 편을 짜고 옆살을 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부각되며, 이러한 인간관계에 근거한 비합리적인 옆살 때문에 돈을 잃기도 한다. 넉동배기를 통한 공유된 경험은 생계농업하에서 노동력 교환을 위해 중요하게 기능하던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의 연망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재생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넉동배기는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환금작물경제에서 중요시되는 합리적인 경제논리는 거부되고 비합리적인 인간관계가 강조된다. 넉동배기에는 환금작물경제를 통한 국가의 지배와 그것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강사·인류학

Ⅰ. 논의의 배경

인류학에서 문화의 개념은 생활양식, 또는 개별사회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징의 체계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문화가 균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문화를 바라보면 개별사회 성원들의 행위를 예측하고 사회구조라는 맥락에서 그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화요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하는 문제에는 접근할 수 없다. 또한 이 시각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의 행위가 문화에 의해 측정되어 진다고 봄으로써 사회의 역동성과 과정이라는 문제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Sider 1986 : 5). 이러한 문제는 문화를 권력의 맥락에서 조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윌리암스(Williams 1982 : 29)는 문화 개념 대신에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문화개념의 일반론적 용법을 교정하고자 한다. 즉,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삶의 방식 전체'라는 개념이 지닌 흔히 거짓된 일반성을 허물어서, 특정한 계급과 그 밖의 집단에게 각기 다른 몫을 할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력의 차이에 기반한 문화의 비균질적 분포를 강조하는 시각은 문화의 형성과정에 주목한다. 이는 문화가 사회관계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규정한다고 인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 입장에서는 사회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문화가 형성되는 원인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할 목적으로 이념적 장치를 필요로 하며,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배에 대항하고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의 의미를 재생산하고 재규정하게 된다(Sider 1980).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행동에 촛점을 맞추는 접근(ac-

tion based approach)'을 사용함으로써(Ortner 1984) 인간의 실천(practice)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제 입장들은 그람씨(Gramsci)의 헤게모니(Hegemony)이론을 통해 정리되고 통합된다. 그람씨(Gramsci 1973)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유산자도 무산자도 아닌 사회집단들은 점차 소멸하고, 노동자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될 것이라는 고전적인 맑스의 이론이 서구의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헤게모니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람씨에 의하면 한 사회집단의 지배력은 두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지배(domination)'와 '지적, 도덕적 지도력(intellectual and moral leadership)'이다(Gramsci 1973 : 161). 따라서 그람씨의 정식에서 헤게모니는 '동맹집단들에 대한 정치적, 지적 및 도덕적 지도'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람씨에 따르면 한 사회집단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은 물리적인 지배와 함께 그런 물리적인 지배가 정당하고 피할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지도력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킬 뿐 아니라 '피지배자들의 능동적 동의를 획득하려는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활동들의 복합체'(Gramsci 1973 : 244)로 이해되며, 이 지도력은 결국 문화를 지배함으로써 확보된다. 또한 지배적 질서 내에서 하나의 문화요소나 가치체계가 헤게모니적 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그것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광범위한 대중적 문화와 공명하게 되는 '접합의 원칙'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강명구 1993 : 37).

그의 이론은 비단 서구 자본주의사회를 분석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이론들은 피지배자들이 문화적 지배를 타파하기 위하여 대항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반이론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피지배자들의 주변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이론적 준거가 된다. 그람씨에 의하면 피지배계급의 통일된 의식은 문화를 통하여 형성되

어 있거나 형성 중에 있다.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비판은 대체문화(alternative culture)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한 계급의 가치와 열망이 표현될 수 있다(Adamson 1980 : 66). 다시 말하면, 한 사회의 지배는 자본과 사회기구에 의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종속된 계급내의 자체 문화생성력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다.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과 그것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문화는 지속적으로 재규정되며 재해석된다.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 획득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문화를 이용하며,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요소는 재해석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되며 여태까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던 문화요소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Nash 1979; Taussig 1980; Scott 1985; Ong 1987).

본고에서는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윷놀이인 넉동배기를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넉동배기는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며 일부의 우려와 같이 도박의 일종으로서 배척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바로 오늘 여기에서 넉동배기가 행해지는가 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밀감농사의 본격화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 환금작물경제로 인하여 제주도는 더욱 중심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환금작물경제의 도입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제주농민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생계를 위한 농업이 아니라 화폐생산을 위한 농업이 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하며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제주농민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회의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관광산업의 팽창과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 때문에 기존의 농산물 가격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제주농민들은 어떤 작

물을 재배해야 할지 선택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국제정세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따라가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행해지는 넉동배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구체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넉동배기의 내용과 규칙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넉동배기를 행하는 제주농민들이 처해 있는 역사적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조사지역의 일반적 특성

제주사회는 분석하는 단위와 입장에 따라 그 성격이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다. 한반도를 분석단위로 삼으면 제주사회는 중심부에 종속된 주변사회이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보면 제주사회는 중심부가 된다. 제주도의 역사에서 제주도가 한반도에 陸屬化(전경수 1987 : 16)된 후, 제주도는 줄곧 한반도의 주변사회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제주도는 중심부의 이해에 따라 목마장이 되기도 하고, 유배지로, 군사기지로, 반공이념의 마지노선으로, 아열대 작물 재배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현재 논의 중인 제주도 개발[1]이나 감귤농업과 하우스 농업으로 대표되는 환금작물경제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1) 제주도 개발이 중심부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은 제주도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를 생각해 보면 명백해진다.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立案되고 있는 제주도 개발 계획은 외지 자본에 의해서, 외지인 소유의 땅에 집중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내 환수가 구조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다. 제주 농업의 구조개편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개발하자는 데 논의의 촛점을 둠으로써 농민의 문제는 도외시 되고 있다. 농민을 상위 개념으로 하고, 농업과 농촌을 하위 개념으로 하는 인식이 요구된다.

제주도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된 밀감농사를 통해서 환금작물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밀감농사의 도입은 제주농민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한 지역적인 분업화의 한 부분으로서 제주도를 아열대 작물재배지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후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이열대 작물 재배지로 성격이 규정되어 왔다.[2] 따라서 밀감농사로 인한 제주지역의 경제성장 역시 내부적인 성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앙 경제의 성장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비중이 크게 실려 있다는 분석(김재하 1994 : 8)이 설득력을 가지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도 제주도의 경제는 중심부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밀감농사와 하우스농사를 매개로 하여 환금작물경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연구마을은 산남지역의 해안마을로서 약 140년의 설촌역사를 갖고 있는 달발마을(가명)이다. 달발마을의 가구수는 173가구이며, 인구는 남자 294명, 여자 330명으로서 총 624명이며(1992년 2월 1일 기준), 주산업은 밀감농사와 하우스농사이다. 하우스농사로는 백합을 비롯한 화훼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달발마을에 밀감농사가 도입된 것은 1970년대초이다. 주변의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밀감농사가 도입된 이유는 달발마을이 논농사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논농사로 인한 경제적 우세는 전혀 새로운 농업인 밀감 농사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게 했다.

---

2) 1989년 기준으로 전국과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제주도는 1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국의 산업별 비중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순으로 각각 10.2%, 31.8%, 58.1%인데 비해, 제주도는 각각 35.0%, 3.0%, 62.0%이다(자료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90 ; 제주도, 『주요행정총람』, 1990). 제주도에서 일차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제주도가 아열대 농업의 특화지역으로 육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초기에는 밀감농사가 해안지대에서는 되지 않고 중산간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인식되어 대부분의 토지가 해안지대에 있는 달밭마을에서는 밀감농사를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안지대에서도 밀감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진 뒤에도 밀감농사를 위해 쌀농사를 포기하는 것이 쉽게 선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밀감농사의 수익성이 논농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자 달밭마을에서도 대부분의 농경지가 밀감원으로 개조되었다. 1992년 2월 기준으로 달밭마을에는 110가구가 밀감농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이 경작하는 밀감원의 총면적은 200,650평으로서 평균 약 1800평 정도를 경작하고 있다.

1980년대초부터 달밭마을에는 하우스농업이 도입되었다. 하우스농업은 밀감농사에 힘 입은 바 크다. 70년대에 본격화된 밀감농사의 결과로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되고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지식이 누적되었다. 그리고 밀감농사로 형성된 판매경로는 하우스농업을 하는 무형의 자산이 되었다. 초기에는 채소류가 재배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거쳐, 80년대 중반부터는 달밭마을에서 화훼(주로 백합)가 주로 재배되고 있다. 화훼는 열대과일에 비해 시설비가 적게 드는 반면 수익성은 높아(강지용 1990 : 73, 75, 87)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달밭마을에서는 78가구가 하우스농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경작하는 하우스 면적은 총 98,490평으로서 평균 약 1260평씩 경작하는 셈이다.

토지이용방식에서 밀감농사와 하우스농업은 차이를 보인다. 밀감농사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토지에서 한다. 밀감농사에는 임노동이 보편화되어서 가족노동력이 부족하더라도 경작할 수 있어서 임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하우스농업은 대부분 인차한 토지에서 한다. 하우스농업에는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족노동력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면적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하우스를 할 수 있

는 토지가 많은 사람이라도 모든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어서 임대를 준다. 하우스 농업은 1000평 정도의 제한된 면적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토지면적이 적은 달밭에서는 자녀가 분가할 때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 수단이 된다. 즉, 밀감농사로 분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천평의 토지가 있어야 하지만 하우스 농업에는 천평정도의 토지만 있으면 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달밭에서는 밀감농사는 부모 세대가, 하우스 농사는 근래에 분가하거나 자식 세대인 30~40대가 주로 하고 있다.

III. 환금작물경제의 영향

환금작물경제는 토지이용방법과 노동력 동원방식에서 생계농업과 차별성을 보인다. 우선 토지이용방법을 보면, 밀감농사가 도입되면서 농경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김준희 1984 : 124)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에서 마을사람들간에 차별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달밭마을의 경우 생계농업에서는 해안지대의 한정된 토지만이 농경지로 이용되었으나 밀감농사는 오히려 중산간지대와 구릉지에서 적응적으로 이루어져 과거에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많은 농경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생계농업에서는 생산에서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이기욱 1993 : 76; 양영웅 외 1990 : 33), 환금작물경제에서는 생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어 토지소유에 따라 영농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토지소유의 차이 때문에 마을사람들 사이에 영농방식도 차별성을 가지게 되었다. 달밭마을 173가구의 영농방식은 농업노동자, 밀감농사만 하는 경우, 하우스 농업만 하는 경우, 밀감농사와 농업노동을 겸하는 경우, 밀감농사와 하우스농사를 겸하는 경우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들은 각각 23, 43, 31, 20, 47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농업노동만 하는 경우는 대부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

으로서 밀감원을 상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우스 농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우스 농업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들은 개별적으로 노동력을 팔기도 하지만 '우게도리'라는 노동조직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노동을 하기도 한다. 밀감농사만 하는 가구는 대부분 가구주가 50대 이후인 가구로서 토지의 일부분을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자기 자신은 하우스 농사를 할 노동력과 정보를 갖지 못하여 밀감농사만 하고 있는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밀감농사만으로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하우스 농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토지 소유에서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하우스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다. 하우스 농사만 하는 가구는 대부분 가구주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40대에 걸친 가구이다. 이들은 부모로 부터 많은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고 하우스를 할 정도의 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아예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차하여 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농산물의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농사에 실패할 위험이 많고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밀감농사와 농업노동을 겸하는 경우는 주로 60대 이후의 여성 1인 가구이다. 이들은 자식들에게 대부분의 토지를 분짓으로 상속해 주고 소규모의 밀감원만 소유하고 있다. 자신의 밀감원만 경작하기에는 노동력이 남아 밀감농사나 하우스농사에 노동력을 팔고 있다. 밀감농사와 하우스농사를 겸하는 경우는 토지와 노동력에서 모두 여유가 있는 가구이다. 이들은 밀감원을 경제적 안전판으로 가지면서 하우스농업을 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에서는 하우스농업만 하는 가구들과 비슷하다. 이 연령층에서만 하우스농업을 할수 있는 노동력과 정보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밀감농사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하우스농업이 도입될 때 밀감나무를 베어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있는 편이다.

하우스농업만 하는 가구와 밀감과 하우스를 겸하는 겸업농가는 비

슷한 연령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경제적 차별성은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우선 겸업농가는 하우스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우스만 하는 농가는 대부분 임대토지에서 하우스농업을 하므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나, 겸업농가는 대부분 자기 토지에서 하우스농업을 하므로 임대료 지불이 없어 영농에 여유가 있다.[3] 또한 하우스농업에는 영농비가 많이 들어 실패할 경우 그 타격이 몇 년씩 지속되며 재기가 곤란한 경우마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겸업농가는 매년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밀감농사라는 안전판을 갖고 있어 하우스농사의 실패에 따른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우스농사만 하는 가구는 겸업농가에 대한 경제적인 차별성을 느낀다.

한편, 생계경제에서 환금작물경제로 생산체계가 변화되면서 노동력 동원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생계경제하에서 달발사람들은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을 주로 수누름을 통해 해결했다. 수누름을 통해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궨당과 지역집단이 중요한 노동력 교환의 기제로 작용하였다. 수누름은 필요할 때 찾아쓰기 위한 유휴노동력의 저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제주도의 농업에서는 생산을 위해 노동력의 투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교환하고 동원하기 위하여 궨당과 지연성이 강조되었다. 제주도에서 성원권이 제한된 친족개념이 아니라 성원권이 열려 있는 궨당이 중요한 문화요소로 자리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김창민 1992 : 41). 또한 제주도의 마을들이 지연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김항원 1990 : 135) 이유도 노동력 동원이라는 맥락과 무관할 수 없다.

---

3) 토지 임대료는 재배하는 작물의 가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서 작물의 가격이 비싸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료도 내려간다. 1991년 토지 임대료는 평당 2000원이었다. 당시의 꽃생산비가 평당 15000원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생산비에서 토지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3.3%인 셈이다. 그러나 하우스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작면적의 약 150%를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의 비중은 이보다 더 높아 20%에 달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성을 확인 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념적으로도 본향당 신앙이 강조되고 생업신이 강조되었다. 같은 본향당에 다님으로써 신앙민들은 지연공동체의식을 확인하고 재생산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생업신을 섬김으로써 신앙민들 사이에 동류의식이 강조될 수 있었다.

그러나 환금작물경제에는 임노동이 요구된다. 밀감농사는 수확을 하는 시기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된다. 그리고 밀감농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유사한 시기에 비교적 장기간 수확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누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밀감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노동을 구하게 된다. 결국 임노동 때문에 마을 내에서 임노동을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당하는 사람사이에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농번기는 늘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밀감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임노동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하게되고 이 관계는 매년 반복되게 지속되는 경향을 지닌다. 이 관계에 기초하여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임노동자들은 필요한 소규모 자금을 빌리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화훼농사에는 연중 지속적인 노동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구근을 캐는 작업이나 심는 일, 그리고 비닐을 입히는 작업에는 임노동이 요구된다. 화훼농사에는 일정한 기술이 요구되어 해본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 따라서 임노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임노동자들과 지속적인 구매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따라서 양자사이에 구분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금작물경제가 도입되면서 노동력 동원방식은 수누름에서 임노동으로 이행되었다고 정리될 수 있다. 이는 호혜적인 노동교환에서 임금을 매개로 하는 비호혜적인 노동력 구매로 노동력 동원방식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노동교환을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점차 소멸되어가고(김준희 1984 : 131), 호혜성의 기반이 되었던 제반 사회제도나 사회조직들도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생산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마을의 지연공동체적 성격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마을내에서 영농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각 작목반은 자기 반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과 유통을 위한 결정들은 대부분 작목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목반 내적인 결속력은 동시에 영농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대립관계로 나타나며, 이 대립관계는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 마을회의에서 농로포장이나 도로개설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작목반별로 대립된 안이 나오기 마련이다. 토질의 특성상 하우스는 하우스대로, 과수원은 과수원대로 밀집되어 있어서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사업도 작목반별로 주도력을 달리하여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오던 마을이라는 지역공동체가 영농방식에 따라 상호이질적인 사회조직체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영농방식이 같은 사람들사이에도 대립은 존재한다. 환금작물 경제에서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농사를 가능하면 피해주도록 기대한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과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작목전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다른 농가가 자신이 재배하는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해주도록 기대하며 이를 위하여 자신의 수익을 숨기거나 낮추어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다른 농가도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대외적으로 소득을 높게 말하는 것은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금기시되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함께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비난받는다. 같은 논리로 경지면적을 넓히는 것도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려는 행위로 비난받는다. 밀감농사에서도 청과출하를 두고 마을사람들사이에 비난과 대립은 상존한다.

환금작물경제가 본격화되면서 달발마을사람들은 두가지 차원의 소

외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는 생산과정의 소외이며 다른 하나는 잉여의 소외이다. 어떤 작목을 어느 시기에 재배하며 언제 출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농민들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가격이 생산의 전 과정을 지배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자율적인 자기 선택에 의해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과 상인 자본의 지배를 받아 강요된 영농을 하고 있다. 외국농산물 수입정책으로 인하여 바나나 농가가 폐농하고 화훼가 그 대체작목으로 권장되면서 기존의 화훼농가 마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생산과정이 농민의 손을 떠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달발마을 사람들은 농업생산을 통한 잉여가 불합리한 유통구조 때문에 철저히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4] 비록 조수익은 높지만 그중 대부분은 생산비로 들어가고 있고, 상인들을 통한 잉여의 착취도 심각한 편이다. 또한 농협을 통한 잉여의 전유도 간과될 수 없다. 대부분의 영농비는 농협을 통해 융자되며 수확철에는 이 부채와 이자를 갚는 것이 큰 일이다. 결국 농협돈으로 농사지어 농협빚 갚고 또다시 농협돈을 빌어 농사짓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이유로 마을사람들은 '농사 지어봐야 상인과 농협만 좋은 일 시키고 농민은 등골만 빠지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환금작물경제는 중심부의 이익을 위해 제주사람을 착취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사회의 힘'(Comaroff 1985)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제주농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재생산된다. 환금작물경제를 통한 지배와 착취는 농민들에 의해 간파되고 대항적인 문

4) 밀감의 유통마진은 해거리현상과 결부되어 있어서 그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약 48.8%에 달한다(강경선 1992 : 709). 한편 화훼는 위탁판매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15%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0%이상이 수수료로 지불되고 있다고 인식된다. 상인들이 지불하는 판매선도금은 상인과 생산자를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묶어두는 역할을 하며, 잉여가 전유되는 한 경로가 된다.

화를 통해 조절된다. 다음 절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넉동배기는 이러한 인식과 대항담론이 재생산되고 공유되는 場이라는 것이 필자의 인식이다.

Ⅳ. 넉동배기의 일반적 특성

넉동배기는 제주도식의 윷놀이의 일종이다.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윷놀이는 두가지가 있으며 그것은 각각 '황윷'과 '넉동배기'로 불리운다. 황윷의 '황'은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는 의미이며, 넉동배기의 '넉동'과 '배기'는 각각 네개의 윷말과 빼기(出)의 의미를 갖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동백나무 가지를 잘라서 만든 길이 2cm정도의 윷가락을 종지에 넣어 던지는 방법으로 윷을 논다.

황윷은 한명의 선(오야)이 마부에게 일정액의 돈을 걸어놓고 손님들과 일대일의 내기를 하는 것이다. 선이 먼저 윷을 던지고 손님이 나중에 던지는데 도, 개, 걸, 윷, 모의 순서로 더 높은 것을 낸 사람이 손님이 건 액수만큼의 돈을 따는 것이다. 즉, 선이 만원의 돈을 마부에게 걸고 손님이 3천원을 건 뒤 윷을 던져 선이 걸, 손님이 도나 개를 내었으면 선이 3000원을 따고, 손님이 윷이나 모를 내었으면 손님이 3000원을 따는 식이다. 그러나 손님이 가장 낮은 도를 내면 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돈을 잃게 된다. 이 경우를 '황 했다'고 한다.

넉동배기는 일명 '넉지날 낙'이라고도 한다. 네 윷말을 내는 방식이라는 의미이다. 넉동배기는 이대이의 게임을 한다. 즉, 일대일의 게임은 기피된다. 일대일의 게임은 두 사람 사이에 극단적인 대립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한다. 넉동배기를 하다보면 분위기가 고조되고 비슷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에서 질 수도 있다. 이때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일대일 게임을 요구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수 진 일 있냐? 일대일로 하게' 라며 게임을 거부한다. 다시 말하면, 구태어 이대이로 게임을 하고 일대일 경기를 기피하는 것은 그만큼

시합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대립된 감정이나 분위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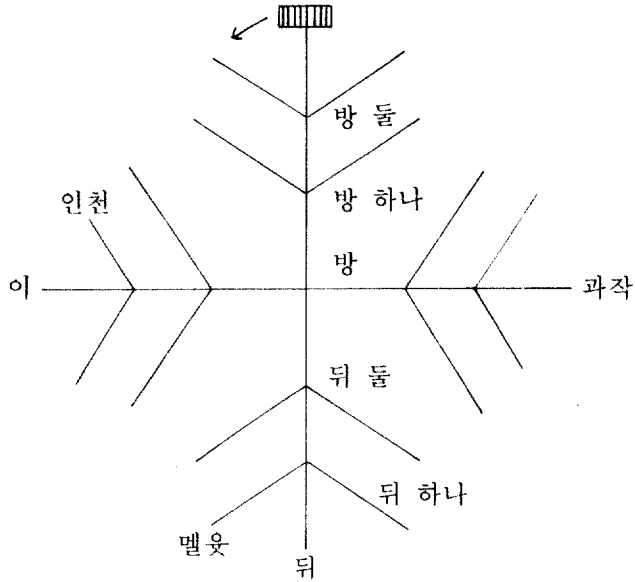
편이 짜지면 윷을 노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에서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둘중 한편에 돈을 걸고 넉동배기에 동참한다. 두편에 동일한 액수의 돈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건 편이 이기면 건 액수만큼의 돈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넉동배기나 황윷은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한다. 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리고 소상 등을 하는 집이 넉동배기를 하는 장소로 제공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복친이나 주인은 으례 넉동배기를 할 장소와 멍석을 준비하며, 마을사람들도 넉동배기를 하기 위해 모여든다. 반면 사적인 자리나 소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절대로 넉동배기를 하지 않는다. 간혹 장난으로 넉동배기를 하라고 옆 사람을 부추기기도 하나 그런 경우에 옆살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넉동배기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공공의 장소에서 행해진다.

황윷은 넉동배기를 하기에 앞서 전초전으로 한다. 넉동배기에는 직접 윷을 노는 사람보다 옆에서 돈을 걸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반면 황윷은 선을 하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소액으로 윷을 한번씩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으며 넉동배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적격이다. 황윷을 하다가 돈을 조금 잃은 사람은 넉동배기를 하자고 제안하며, 황윷의 분위기는 사람이 모이면 넉동배기의 분위기로 쉽게 바뀐다. 또 넉동배기를 하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돈을 따버리면 옆살을 하고 응원을 할 사람이 없어져 소강상태가 된다. 이때는 다시 황윷을 하며 넉동배기의 분위기를 유도한다.

넉동배기의 윷말판은 육지부와 조금 다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윷말판은 방사선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점에 대한 고유한 명칭을 갖고 있다. 이 명칭은 제주사람들의 인지체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인천'이란 지명은 가장 어려운 윷 자리이기 때문에 윷말이

죽을 염려가 없어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로 지원하여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천 앞바다의 고요함에 비추어서 만들어 낸 말이라고 한다. '뒤 하나'와 '뒤 둘'은 일명 '청와대 안방'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그림 1〉 넉동배기의 윷말판

기본적으로 넉동배기는 도박성을 지니고 있다. 돈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넉동배기는 없으며 처음 시작은 소액으로 하나 점점 액수가 커져 한판에 걸리는 돈이 백만원을 넘기가 일쑤다. 마을에서 잔치가 있을 때에 부조금보다 넉동배기로 날리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다반사이며, 이경우 '이번 잔치에 도새끼(돼지) 세마리 부주했져' 하는 말을 흔히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비롯한 대소사는 대부분 3일

정도 지속되므로 이 기간동안에 마을의 남자들은 대부분 넉동배기에 몰두하며, 넉동배기 때문에 잔치가 된다고 할 정도로 넉동배기는 대소사에 필수적이다. 도박성 강한 넉동배기가 왜 이렇게 많이 행해지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V. 넉동배기의 규칙

넉동배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직접 윷을 노는 사람과 심판을 보는 마부, 그리고 옆살을 하는 응원꾼이다. 마부는 윷을 노는 사람들의 지시대로 윷말을 쓰며 윷판에 걸린 판돈을 맡았다가 승리한 편에 준다. 그 댓가로 마부는 판돈의 3~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이 수수료를 '격'이라고 한다. 격을 주는 것은 윷을 직접 논 사람이기 때문에 마부는 '격을 잘 내어야 윷을 이긴다' 면서 격을 많이 받고자 한다. 마부가 받은 격은 잔치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 윷판에 나온 술값이라고 절반을 주며 나머지는 마부가 갖는다. 마부에게는 윷을 노는 사람이나 응원꾼들이 분위기가 고조되면 반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마부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옆살을 할 돈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주로 한다.

윷을 직접 노는 사람의 편을 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윷을 노는 것은 확률게임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실력차이가 존재한다. 이 실력차이에 근거해서 마을에는 비록 농담이 가미되기는 했으나 일등 윷에서 십등 윷까지 서열이 있다. 따라서 편이 잘못 짜여지면 승부가 쉽게 예측되어 옆살을 받을 수가 없다. 질 곳이 분명한 편에 돈을 걸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옆살을 많이 받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승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실력이 비슷하게 편을 짠다.

편을 짜는데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규칙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이다. 같은 편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공통된 사회적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상대 편과는 대립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즉, 같은 권당이거나 살고 있는 지역이 같거나 그것도 아니면 갑장이거나 해야 같은 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비슷해도 이런 공통된 속성을 가진 사람이 상대편에 속할 수는 없다. 권당이 서로 다른 편에 속해서 넉동배기를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옆살을 하지도 않는다. 즉, 같은 편은 서로 공통된 사회적 속성을 갖고 있으나 상대편과는 일정한 대립관계가 있어야만 편이 된다. 그렇게 해야 경쟁과 대결관계가 생길 수 있고 넉동배기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심각한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넉동배기에는 이씨 대 김씨, 57년 갑장 대 60년 갑장, 동동네 대 섯동네, 복친 대 비복친, 총각 대 기혼 등으로 편이 짜이게 된다. 만약 같은 성씨나 복친이 서로 다른 편에 들어가서 시합을 하게 되면 어른들로부터 '못난 놈'이라는 욕을 듣게 되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느 편에도 옆살을 할 수 없어 넉동배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직접 윷을 노는 사람들이 내기에 거는 돈을 '싱(심?)'이라고 하며 옆에서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걸어놓는 돈을 '옆살'이라고 한다. 옆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길 확률을 보고 옆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윷을 놀고 있는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옆살을 한다. 윷을 노는 사람들이 이미 대립되는 사회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살을 하는 사람들은 두 팀의 변별적 자질에 의해 어느 쪽에 옆살을 해야 하는가가 결정되며, 두 팀중 자신이 속하는 편에 옆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넉동배기 판은 대립되는 두 집단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게 되며 참여자들은 둘중 한 집단에 속해 승부에 따라 함께 돈을 잃고 따는 운명공동체가 된다. 만약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확률에 따라 옆살을 하면 권당도 모르는 놈, 갑장도 모르는 놈, 밝히는 놈이라고 비난받으며 마부는 그 사람의 옆살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옆살의 규칙 때문에 넉동배기가 벌어질 때면 으레히 '권당 망하면 나도 망한다', '갑장 망하면 나도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두편 모두에 속할 수도 있다. 한편에는 자기의 권당이 있고 상대편에는 자신의 갑장이 있을 경우가 그런 예이다. 이 경우에는 옆살을 하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한편에 옆살을 했다가는 다른 편에 속한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번 옆살을 하면 윷을 노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같은 편에 옆살을 하게 된다.

마을 외부의 사람이 옆살은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윷을 놀 수는 없다. 우선 편을 짜는데 제한이 따르고 옆살을 받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옆살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따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어서 딴 돈의 일부를 내어놓거나 일찍 자리를 피해야만 한다. 이런 면에서 넉동배기는 철저하게 마을 내부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며 마을 성원권을 확인하는 장이 된다. 다시 말하면 넉동배기에서는 마을사람과 외부사람이 철저하게 구분되며, 마을 외부의 사람은 넉동배기에 끼일 수 없다. 외부사람으로서 넉동배기에 끼고자 한다면 자신을 마을사람으로 정체화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을 외부의 사람이 옆살을 할 때에는 기존의 마을사람들과 권당관계를 찾거나 갑장관계 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야만 한다. 복친관계도 마을 외부사람이 넉동배기에 끼일 때 이용하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 중의 하나이다. 결국 넉동배기는 상징적으로 마을의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Ⅵ. 넉동배기의 함의

넉동배기에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윷을 노는 사람과 옆살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옆살은 이길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근거해서 한다. 처음에 판을 짤 때 옆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적 관계에서 근거리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옆살을 하며 한번 옆살관계가 성립되면 판이 끝날 때까지 그 관계는 계속된다.

옆살을 할 때 고려되는 사회적 관계망은 권당과 갑장, 그리고 거주지역 등이다. '권당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권당관계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다음의 대화는 결혼식 때 벌어진 넉동배기에서 생긴 것이다.

(사례) 넉동배기 편짜기

송씨 : 송칩이영 이칩이영 한판 하자.

박씨 : 송칩이 이칩이만 사람이냐. 박칩이도 한번 하자.

송씨 : 하고싶으면 이넉도 박칩이 데려와라.

박씨 : 달밭에는 박칩이가 별로 어서부난 넉동배기도 마음대로 못 하고, 서러 워서 원.

이 대화는 넉동배기의 편을 짤 때 권당관계가 이용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권당관계가 편을 구성하는데 중요하게 이용되는 것은 옆살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장는 옆살보다 편을 구성할 때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갑장끼리 한 편을 구성해야 호흡이 잘 맞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옆살은 갑장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많이 하지 않게 된다. 거주지역도 중요한 변수이다. 올레 대 올레의 시합과 班 對 班의 시합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 경우에 옆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옆살을 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옆살에 동참하게 된다.

넉동배기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이 중첩되게 작용한다. 편이 구성되면 옆살을 하는 사람들은 선수들과 갖게 되는 여러가지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가까운 편에 옆살을 하고 응원을 한다. 그 결과 선수들은 물론이고 함께 옆살을 하는 사람들과 운명공동체가 되어 돈을 따면 함께 따고 잃으면 함께 잃는다. 시합 도중 선수나 옆살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돈이 부족하면 무리할 정도로 자신의 돈을 옆살에 부어넣어 돼지 몇마리 값에 해당하는 돈을 잃기도 한다.

한편, 넉동배기에서 편을 짜고 옆살을 해서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판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유동적이다. 이판에서는 궨당이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다가 다음 판에는 갑장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지역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넉동배기가 행해지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운명공동체는 달리 구성되고 재편성되며 집단성원권도 달라진다. 이는 여러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융합시키는 과정을 통해 마을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을 높이는 것이며 공유의 경험과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넉동배기에서 고려되는 사회적 관계들은 모두 생계농업하에서 중요시되던 문화요소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궨당관계와 갑장관계, 그리고 지역성은 생계농업에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중요시되던 것들이다. 그러나 환금작물경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결사체가 넉동배기에 동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작목반이나 친목계에 근거해서 넉동배기나 옆살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생계농에서 중요시되던 사회적 관계들이 다시 넉동배기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넉동배기에서 편을 짜고 옆살을 하는 방법은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낸다. 환금작물경제가 전개되면서 기존의 사회관계는 생산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경제활동이 개별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동원을 위해서도 기존의 사회관계는 별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임노동에 근거한 노동력 동원이 생산에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합리성에 근거하여 영농을 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마을공동체의 해체와 연관되는 것이며, 마을성원이 개별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넉동배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오히려 전통적인 사회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넉동배기에서 옆살을 할 때는 궨당이나 갑장, 같은 올래 등과 같이 생계농에서 강조되던 인간관계가 강조된다. 더구나 그런 인간관계를 깨고 옆살을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받는다. 궨당이 망하면 나도 반드시 망해야 하며 갑장이 망하면 나도 망해야 마땅하다. 넉동배기에서는 궨당이 망하고 같은 올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망하지 않은 사람은 반사회적 인간으로 낙인 찍힌다. 생계경제하에서나 적실성을 갖고 있던 인간관계가 넉동배기를 통해 환금작물경제하에서도 재생되며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합리성에 근거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비합리적인 도박성 넉동배기를 하며 비합리적으로 옆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넉동배기에는 마을사람들의 현실인식이 담겨져 있다. 히말라야 지역의 산림개발과정에서 농민들이 저항한 것은 산림개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농민들의 인식이 상이했기 때문이라고 구하(Guha, R. 1989)는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환금작물경제에 대해서도 중심부와 제주농민의 인식은 상이하다. 중앙정부는 환금작물경제를 농업발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성과 합리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경제논리에 근거해서 간벌이나, 적과, 생산량 조절, 품질개선 등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주농민들은 환금작물경제를 통하여 착취를 경험하고 있다.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경제논리는 농민들의 통제권 밖에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지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농업생산을 통한 잉여는 농협이나 상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산과정과 잉여의 전유 때문에 환금작물경제는 '등골을 빼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 하우스 농사의 중심되는 작목인 백합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백합의 이름이 백합인 것은 사람의 손이

백 번은 가야 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도한 노동력 투입으로 인하여 농한기도 없는 농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옛날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수단들과 조치들을 지배와 착취의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러한 합리성과 경제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거부한다. 합리성에 근거한 영농이 결국 잉여의 전유를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붕괴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환금작물경제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생계농업하에서 적실성을 갖고 있던 인간관계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생산과정과 경제적인 문제로 작목반과 작목반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이나 같은 작목반원들 사이에서까지 일어나는 반목 때문에 작목반과 같은 조직들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궨당이나 갑장과 같은 전통적인 인간관계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근거한 제반 결사체들이 1980년대 이후 많이 결성되고 있음은 이러한 인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넉동배기에서 전통적인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들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설명될 수 있다. 넉동배기에서는 합리성이 부정되고 비합리적이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반 행위들이 선호된다. 넉동배기에서 돈을 잃은 것은 농사에서 실패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넉동배기에서는 비합리적으로 옆살을 할수록 그리고 돈을 많이 잃을수록 위세를 부여받는다. 합리성을 거부하고 비합리성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인간관계는 생계농업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생계농업에서는 노동력 교환을 위해 인간관계가 필수적인 것이었다. 환금작물경제에서 노동력 교환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토지 소유나 임노동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인간관계는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다. 넉동배기에서 부각되는 비합리성과 인간관계와 생계농업은 공유된 의

미를 갖고 있고, 합리성과 경제논리, 그리고 환금작물경제는 전자와 대립된 관계에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후자들을 거부하고 이미 생산관계에서 적실성을 상실한 전자가 중요시되고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 넉동배기의 논리이다.

현실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안적인 질서를 생산하는 것은 상징적인 저항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저항이다. 상징적 수단을 통한 저항이나 대항문화는 기존의 질서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Gluckman 1954) 역으로 실제적인 저항의식을 고취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Yinger 1982 : 159). 사회질서와 체제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은 억압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억압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항문화를 개발하며, 이 대항문화는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안적인 질서를 내세운다. 넉동배기에서 생산되는 규범들은 환금작물경제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사용되는 규범들과 상반된 것으로서 대안적인 규범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넉동배기는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저항의 한 수단이다.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는 물리적인 지배와 함께 헤게모니의 지배를 동반한다. 환금작물경제를 통한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는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이념적 지배를 강제함으로써 관철된다. 국가에 의해 강제된 환금작물경제의 의미는 농업발전이나 농촌개발이라는 것으로 정당화 되어왔다. 더구나 환금작물경제의 작용논리인 경제성과 합리성은 모든 사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화되고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이념적 지배는 대중매체나 정부의 홍보, 또는 직간접적인 교육을 통해 말해짐으로써 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러한 이념적 지배에 순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으며(Anderson 1983 : 55),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도 대항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쟁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Macdonell 1992 : 45).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이념이 피지

배자들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자율적이며 저항적인 하위문화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배에 성공한 예는 없다는 Scott(1985 : 335)의 지적처럼 제주농민들은 국가의 지배를 간파하고 재해석하여 대항적인 이념을 창출하고 있다. 넉동배기는 지배적인 이념을 간파하고 대항적인 이념을 창출하는 場이 된다. 지배적인 이념인 합리성과 경제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 찍힘으로써 그것에 바탕을 둔 환금작물경제 역시 저항의 대상이 된다. 반면 대항적인 이념으로서 비합리성과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재생산된다.

넉동배기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행해지지 않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해진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공적인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넉동배기는 사회적 연행으로서 기능한다. 넉동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합의 속에서 대항적인 이념을 재생산하며, 저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과 의식이 널리 공유될 때 계급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는 제반 상징들이 특별한 힘을 갖게 된다(Scott 1985 : 46). 따라서 농민들이 하는 넉동배기와 그것을 통한 인간관계의 경험, 운명공동체의 경험, 현실에 대한 인식, 행위에 대한 해석 등은 계급의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제주농민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저항이다. 잔치를 먹으러 왔던 행정기관의 간부들이 마을사람들의 권유로 넉동배기에 끼여들어 직접 선수가 되기도 하고 옆살을 하기도 한다.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국가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에 동참하고, 그들과 저항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배의 대리인이 된 자신들의 입장을 중화하고 희석시키려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넉동배기에는 마을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환금작물경제가 보편화되면서 그러한 경제적 변화는 바람직하거나 최소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늘 외부사회에서 만들어진 후에 마을사람들에게 강제된 것이다. 한편, 달발마을 사람

들이 환금작물경제를 경험하면서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공식적인 것과 차이를 보여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갈 수 없으며 외부의 상황에 의해 늘 변화하는 가격과 작목, 그리고 기술을 수용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더구나 그러한 변화로 자신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지연성이 약화되며 인간관계가 해체됨으로서 땅은 농촌이지만 인간관계는 도시에 살고 있는 모순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되지도 못하고 비현실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낙인 찍혀왔다. 이러한 그들의 비공식적인 인식이 표현된 곳이 바로 넉동배기이다. 넉동배기를 통해 그들은 생계농에서 갖고 있던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그러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에게 말한다. 현실에서는 권당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 없어도 넉동배기에서는 흔쾌히 함께 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금작물경제의 합리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은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왜 비합리적이고 도박성이 짙은 넉동배기가 마을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며 비합리적인 옆살을 하면서도 그것을 즐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Ⅶ. 맺 음 말

동일한 현상인 환금작물경제도 인식주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 상업농을 주도하고 있는 중심부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금작물경제의 전개라는 외부사회의 강제를 수용하고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 그리고 환금작물경제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바탕이 되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그

들의 인식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생산과정과 잉여에서의 소외를 경험하고 환금작물경제를 통해 착취를 경험하는 농민들은 대항적인 이념을 창출하게 된다.

넉동배기는 이러한 저항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도박으로 인정되어 언론에서까지 문제로 삼고 있는 넉동배기는 현재 제주농민들이 가장 즐기는 놀이의 하나이다. 넉동배기에서 편을 짜고 옆살을 하는데는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연망들이 동원된다. 생계농업 하에서 노동력 교환을 위해 이용되고 유지되던 제반 사회관계들은 운명공동체가 되어 함께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궨당 망할 때 함께 망하고, 갑장 망할 때 함께 망하는 의례적 경험은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복구되어야 한다는 담론이며, 마을사람들은 넉동배기에서 그런 인간관계를 즐긴다. 국가가 제공하는 이념이나 현실인식을 거부하고 대항적인 이념을 창출하여 재생산함으로써 넉동배기는 저항의 담론으로 작용한다. 약자로서의 농민들이 하는 저항은 이러한 일상적인 저항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넉동배기는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마을의 공식적인 상황에서 행해짐으로 이러한 인식은 공유되고 재생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환금작물경제가 본격화된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넉동배기는 단순한 전통의 부활이나 과거로의 회귀, 또는 현금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행심의 만연은 아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저항의 일종으로서, 국가의 지배와 그것에 대한 농민들의 간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저항의 담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넉동배기는 환금작물경제를 통한 국가의 지배에 대한 제주농민들의 저항의 한 수단이다.

참 고 문 헌

강경선

1992 "농업", 「제주도지」 2권, 제주도.

강명구

1993 「대중소비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강지용

1990 "제주도 농업의 구조와 생산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재하

1994 "위기속 제주경제 살 길은……", 「제민일보」 1994년 1월 1일, 제민일보사.

김준희

1984 "감귤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 : 제주도 위미리의 사례" 「인류학논집」 7 : 106-151.

김창민

1992 "범주로서의 친족 : 제주도의 괜당", 「한국문화인류학」 24 : 95-115.

김항원

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양영웅, 김종태, 김병택, 이기욱

1990 "한국문화속의 제주문화의 특수성과 발전방향", 「사회발전연구」 6 : 9-54,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기욱

1993 "환경과 제주문화 : 제주문화의 생태인류학적 연구서설", 「탐라문화」 13 : 51-7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전경수

1987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 연구」 4 : 11-45.

Adamson, Walter L.

1980 *Hegemony and Revolution : A Study of Antonio Gramsci's Political and Cultural Theory,* Berkely & L. A. : Univ. of California Press, 권순홍 역, 「헤게모니와 혁명」, 학민사 (1986).

Anderson, Perry

1983 "Structure and Subject", *In the Tracks of Historical Materialism,* Verso, 오길영, 윤병우 외 편역,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실천(1993).

Comoroff, Jean

1985 *Body of Power Spirit of Resistance,* The Univ. of Chicago Press.

Gluckmann, M.

1954 *Rituals of Rebellion in South-East Africa,* Menchester Univ. Press.

Gramsci, Antonio

1973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ed & trans. Hoare, Q. and G. N. Smith, London : Lawrence & Wishart.

Guha, Ramachandra

1989 *The Unquit Woods : Ecological Change and Peasant Resistence in the Himalaya,* Delhi : Oxford Univ. Press.

Macdonell, Diane

1992 *Theories of Discourse,* 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Nash, June

1979 *We Eat the Mines and the Mines Eat Us,* Columbia Univ. Press.

Ong, Aihwa

1987 *Spirits of Resistance and Capitalist Discipline.* S.U.N.Y. Press.

Ortner, Sherry, B.

1984 "Theory in Anthropology since the Sixtie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6(1).

Scott, James C.

1985 *Weapons of the Weak :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Yale Univ. Press.

Sider, G. M.

1980 "The ties that bind : Culture and agriculture, property and propriety in the Newfoundland village fishery", *Social History,* 22 : 174-197.

1986 *Culture and Class in Anthropology and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Taussig, M.

1980 *The Devil and Commodity Fetishism in South America,* The Univ. of North Calorina Press.

Williams, Raymond

1982 *The Sociology of Culture,* N. Y. : Schocken Books, 설동규, 송승철 역, 「문화사회학」, 까치.

Yinger, J. M.

1982 *Countercultures,* The Free Press.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 *Nukdongbaeki* of Cheju Islands

Kim Chang-Min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a folk play of Cheju islands named *'Nukdongbaeki'*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and peasant resistance. The rule of state is composed of dominance and hegemony that means political leadership based on the consent of the led. Cash crop economy in Cheju Islands is a means of state dominance and alienates the peasant from production and surplus. However, it is interpreted as agricultural development or rural development by the state. But this ideology is penetrated and reinterpreted by peasant.

In the *Nukdongbaeki,* traditional Cheju cultural elements are revitalized. Traditional networks of human relations are required for the making up a team and deciding betting. For this irrational betting, sometimes they lose games and gamble away their money. The experiences which are shared in *Nukdongbaeki* tell that traditional Cheju culture is revitalized and the social relations which are consonant with subsistence economy are recovered.

To conclude, *Nukdongbaeki*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conflict between state power and peasant resistance. Rational economical efficiency is stigmatized and irrational human relations are valued. *Nukdongbaeki* is a means for peasant to resist state power.